

김용민브리핑

2016년 11월 17일 목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쏠!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궁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매트리스엠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편속몰은	032-519-4800
네펜알	nepr.co.kr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키넥스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3D 실물 피규어 수공예품 제작	010-5633-6036
메이드바이어스	madebyus.co.kr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당콩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75% 민주주의의 완성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강양구 박성민의 '정치의 몰락'(민음사, 2012)이라는 책의 핵심을 '주간경향'이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51%만을 확보하면 모든 것을 장악하는 다수결 방식은 한국사회에서 동의와 승복을 얻어 내기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75% 민주주의'이다. 한국사회는 적어도 75%가 동의하는 일에는 승복하는 문화를 갖고 있기에 정치제도 또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탄생하게끔 하고 선거제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제로 바꾸는 것이 75% 민주주의의 실현방안이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박근혜 사퇴 퇴진 요구가 75%에 이릅니다. 더 고심할 여지가 없게끔 국민이 하야의 레드 카펫을 깔아줬지만 박근혜는 이에 역행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의 숨은 지지 세력이 있듯 '샤이 박근혜'가 있을 거라는 망상입니다. 또 엘리트 비리 수사 포도라인에 비박과 야당 인사를 끌어들이면 국면 전환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양상이고요. 잠시 주춤했을 뿐 변함없이 그들은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은 즉각 타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안 걸릴까 그 궁리만 할 테니 기회 또 쥐 봐야 반성 안 할 겁니다. 때마침 나온 jtbc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비탄에 빠질 때 박근혜가 수괴인 무당 정권은 지지율 하락 걱정, 또 비판 여론 억누를 궁리만 했습니다. 그리고 공작을 벌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만 그랬습니까? 바늘 도둑은 그 뒤 소도둑이 됐고, 문화, 예술부터 외교, 국방까지 국정과 공공재는 거침없던 그 악귀들의 사유물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은 이 와중에도 반성과 쇄신을 이야기합니다. 또 속으시겠습니까? 이때를 대비한 전여옥의 명언이 있습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늪이 나뻐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뀝니다." 김종필 씨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100%에 육박한 여론이 하야를 요구해도 박근혜는 들은 척조차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아시지요?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또 좇볼로 썰기를 박아야 합니다. 저런 철벽 몰염치를 상대로 과연 이길 수 있나 싶으십니까? 하지만 거대한 좇볼의 바다가 지금까지 하야 요구 정국의 고비 고비를 뚫고 왔습니다. 모레 토요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모입니다.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1월 17일(목) 1부 | 파국 가는 차... "임기 보장" 與 의원 1명 뿐

[오프닝] 세월호 두 달만에 공작으로 출구찾던 악귀정권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경향] '청와대 진돗개' 때문에 난국에 출장 갔다
- [국민] "차 임기·권한 보장해야" 새누리 의원은 1명뿐
- [한겨레] "최순실·안종범 진술만으로도 차 뇌물죄 가능"
- [조선] 대통령과 총수 독대 끝나면 최순실축이 수급
- [YTN] "세월호 당일 간호장교 청와대 출장 기록"
- [뉴스듣기능력평가] 천지신명은 과연 차를 도울까
-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 정세현 임동원 등 전문가 "차에게 외치려? 큰일날 소리!"
- 일본 언론인 "제재" 엄습 평양? 호텔 찌꺼고 시내 활기
- [경계의 속살] 이원배 민중의소리 기자
- 삼성 둘러싼 핵심 의혹·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리
- [공화국 논평] '탈당' 남경필에 대한 강도높은 중대조치

드라마보다 더한 차정권

경향신문 한진해운 사태보다 진돗개가 중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지금도 그러하지만 조선업과 해운업의 위기로 국가경제가 휘청 이던 지난해, 진돗개를 평창 동계 올림픽 마스코트로 선정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설득하러 간 것이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누가 이랬나. 박근혜다. 청와대는 지난해 여름부터 박근혜의 반려동물인 진돗개를 올림픽 마스코트로 선정하라고 조양호 회장에게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바쁜 조양호가 박근혜의 사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이다.

경향신문 안종범, 성추행범 마저 '구명 로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대한항공 사장에게 '최순실 씨 민원'이라며 고모씨의 인사를 청탁했다. 고모씨는 고영태의 친척이었다. 대한항공은 고모씨를 제주지점장으로 전보발령을 냈지만 얼마 못 가 고씨는 사내 성추행 의혹에 연루됐다. 조양호 회장의 측근에 따르면 그때 안종범이 다시 전화를 해 고모씨에 대한 구명로비를 했다고 한다. 결국 실패했지만.

중앙일보 "차 지시로 한·일 군사협정 서둘러"

정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속도를 낸 배경에는 대통령 박근혜의 뜻이 작용했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 박근혜가 '그냥 계획대로 추진하세요' 이렇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막다른 골목의 박근혜

중앙일보 '엘씨티 비리' 박근혜의 돌파구?

대통령 박근혜가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일명 엘씨티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본인의 검찰 조사를 거부한지 하루만의 일이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과 새누리당 비박계에게 맞불을 놓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뭐 짐작이 되는 인물이 짝이는 모양이겠지.

국민일보 차 임기 보장 원하는 與의원은 1명

국민일보가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대통령 박근혜의 거취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한 102명 중 18명은 지금이라도 탄핵안이 발의되면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즉시 하야 의견까지 합하면 22명에 달하는 셈이다.

야권 표를 합하면 모두 193명으로 탄핵 가결 정족수에 7명 모자란 수치다. 그래서 친박도 탄핵하자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한겨레 검찰, 박근혜에 '대면조사' 요구할 듯

검찰은 내일까지 대통령 박근혜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근혜가 안종범과 정호성의 진술이나 증거자료에 비춰볼 때 사실상 '피의자'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안종범이 "대통령 박근혜의 지시로 기업들로부터 돈을 거뒀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최순실과 안종범 공소장에 박근혜를 제3자 뇌물의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소장에 박근혜의 공모 사실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뇌물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사는 "이제까지 언론 등을 통해 나온 관련자 진술과 사실 관계들을 종합하면,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기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비선 공화국, 대한민국

노컷뉴스 경찰 인사는 안봉근이 주물렀다

경찰 치안감 승진을 앞둔 경무관에게 깜짝 놀랄만한 제안이 전달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 나갔던 총경이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연결을 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이 총경은 경무관 이상의 경찰 인사는 안봉근 전 비서관이 다 한다고 알려졌다. 안봉근 전 비서관이 경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됐다.

한겨레 삼성물산 합병에 최순실 그림자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압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이자 제일모직의 3대 주주가 바로 국민연금이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찬성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과 최순실의 커넥션이 주목받고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합병안 가결 일주일 뒤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독대했고, 다음 달에는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독일 비텍스포츠에 송금을 시작했다. 대가성이 인정되면 박근혜는 뇌물 혐의 적용을 피하기가 어려워진다.

朝鮮日報 차이 총수 독대하면 최순실이 수급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 기업 회장과 대통령 박근혜의 독대가 이뤄지고, 그 직후 최순실 측에서 돈을 요구하는 식의 패턴은 삼성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먼저 검찰 수사를 앞둔 롯데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와 독대를 했다.

이후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은 롯데를 찾아와 돈을 더 내라고 요구했다. 또한 SK 최태원 회장은 지난 2월 박근혜와 독대를 했다. 그 직후 K스포츠재단은 SK에 80억원을 요구했다. SK가 이를 거절하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은 불허됐고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일보 경제민주화 언급하면 ‘천벌’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민주화의 주무 부처이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조차 말하지 못하게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던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놓고 경질됐다. 2015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아예 사라졌다.

한국일보 의료 영리화는 차병원 위한 선물?

박근혜 정부의 의료산업 규제 완화는 차병원그룹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의혹이 있다. 차음병원은 최순실의 단골 병원이다. 지난 5월 대통령 박근혜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은 차병원의 주력 사업이다. 한편 차병원 계열인 차의과학대학의 요구에 반대를 해왔던 보건복지부 주무과장은 교체됐다.

경향신문 ‘차의과대’에 복지부 낙하산 줄줄이

차병원 계열 차의과학대학에는 다수의 전직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들이 교수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는 차병원그룹이 얽힌 정부의 의료수출 확대 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도 포함되어 있다.

박근혜의 아킬레스건, 세월호

JTBC ‘세월호 여론전’ 보고서, 최종 독자는 차

이미 접하셨을 뉴스일 텐데 JTBC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지했던 청와대 보고서를 입수했다.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보고서 내용은 '세월호가 국정운영 발목을 잡는다' '보수단체 등을 내세워 여론전을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의 작성 시점은 세월호 참사 발생 두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오늘을 읽는 책
월든 Walden
헨리 데이비드 소로

노컷뉴스 ‘다이빙 벨’ 극장, 블랙리스트에 올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는 인디스페이스와 아리랑시네센터, 그 해 개관한 대구 오오극장 등 민간 운영 전용관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 극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구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한 곳들이었다. 독립영화계 관계자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찾아와 앞으로 지원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겨레 ‘7시간’ 피켓 소지하면 靑 못 간다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경빈 엄마’ 전인숙씨와 ‘수진 아빠’ 김종기씨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청와대로 이동하다 제지당했다. 경찰은 “유가족들이 소지한 물품이 대통령 경호상 위해 소지가 있다”고 이유를 댔다. 문제가 된 것은 피켓에 적힌 ‘7시간’이란 문구였다. 경찰이 대통령 박근혜의 ‘심기경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7시간이 가장 큰 아킬레스의 건이라는 이야기겠지? .

정유라만 자식인가

한국일보 정유라 때문에 두 번 눈물 흘린 가족

국내 마장마술 유망주 김혁 씨의 아버지가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했다. 정유라 사태로 승마 유망주들이 입학할 학교가 사라지거나 훈련·대회 출전 등을 인정받지 못하는 2차 피해를 걱정하는 것이다. 김혁 씨는 2013년 전국승마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2위를 한 정유라가 이의를 제기하며 경찰이 심판들을 소환했다. 또한 김혁 씨의 아버지는 최순실의 측근으로부터 세무조사 압박을 받으며 은행 계좌를 추적당하기도 했다.

東亞日報 조희연, 정유라 ‘중졸’ 처리할 듯

정유라가 이화여대 입시 때 금메달을 케이스째 면접장에 가져갔다고 한다. 그리고 면접위원들에게 보여줬다고 한다. 사실 소지품을 가져갈 수 없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이화여대만 정유라한테만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가 확인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출석을 엉망으로 한 사실은 서울교육청이 확인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고등학교 졸업 취소를 결정한 모양이다.

오늘의 칼럼

경향신문 “시간은 누구의 편일까”

경향신문 최우규 논설위원의 칼럼, “시간은 누구의 편일까”가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이다.

최우규 경향신문 논설위원 칼럼 이어짐

“영화 ‘내부자들’에서 한 손이 잘린 뒤 수감된 이강희 논설주간은 이런 통화를 한다. “우린 끝까지 질기게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적당한 시점에서 다른 안줴거리를 던져주면 그뿐입니다. 어차피 그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싶은 얘기는 고민거리를, 울고 싶은 얘기는 울 거리를, 욕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욕할 거리를 주는 거죠. 열심히 고민하고 울고 욕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다 보면은 제 풀에 지쳐 버리지 않겠습니까.”

과연, 얼마 전까진 그랬다. 세월호 참사가 터진 게 947일 전. 박근혜는 연출한 사과 이외에 한 것이 없다. 진상규명은 수없



는 휘방에 좌절됐다. 농성장을 향해 “이제 그만하라”는 소리가 나오던 차다. 시간은 세월호 유가족들 편이 아닌 듯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다. 투병 317일 만에 숨졌지만, 현재까지 그 누구도 책임을 졌다거나 처벌됐다는 소식은 안 들렸다.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던 차다.

누리과정 예산 미배정,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군사정권 때나 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 배치 등에서도 박근혜 정권은 시간을 무기로 내세웠다.

정권의 내부자와 공모자들은 대중들이 떠들다 입을 닫을 때까지 느긋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이번에도 시간은 박근혜 정권 편일까. 시간은 힘센 이의 편이 아니다. ‘흐지부지’를 거부하는, 끈질긴 이의 편이다.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42명 시국선언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절차 중단하고 모든 외치에 손 떼라

현재 대한민국은 비상 시국이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사법체계를 위반하는 행위가 청와대에서 이뤄졌다. 이로 인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내치는 물론이지만 외교·안보·통일을 책임질 능력이 없음이 입증됐다. 대한민국의 현 통일·외교·안보 난맥상을 초래한 대통령이 ‘외치’를 계속 좌지우지한다면 대한민국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은 합리적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난맥상, 바로 그 자체였다.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자주국방의 기틀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던져버렸다. 위안부 문제를 앞에 내세우고 일체의 대일외교를 중단하더니, 갑자기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맺었다. 장관을 포함한 통일부 내의 신중론을 갑자기 뒤집어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자신의 공약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 불신프로세스로 퇴락했다. 근거 없는 ‘북한붕괴’설을 무슨 예언처럼 신봉하며 제재와 압박에만 몰두했다.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신장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마저도 안보를 우려해야 할 지경에 처했

다. 이러한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대신, 박근혜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덜컥 내려 대한민국과 동북아전체를 위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그 결과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동북아 불안·긴장 상태로 귀결됐다.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총체적 파국은 오롯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다. 박근혜 대통령 뒤에 비이성적 비선실세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그간의 난맥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면제하는 구실이 되지는 않는다. ‘외교’는 ‘외유’가 아니다. 비선실세가 골라준 옷을 입고 미소 지으며 패션쇼를 펼치는 자리가 아니다. 다른 나라 정상을 마주하고 “밤잠을 못자며 걱정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니다. 안보와 관련된 비밀정보를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한 개인과 공유하고, 통일 정책을 발표하는 연설문을 사이버 종교인이 수정하게 했다면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은 박근혜 대통령을 로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미신적 종교에 의해 국정이 농락당했다는 등 조롱조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재외동포들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데, 대통령이 얼굴을 들고 외교를 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안보·통일의

총체적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이 당장 외치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그 동안 사드 배치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등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과 동북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책 등은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대통령은 내치든 외치든 국정을 이끌 능력과 정당성을 상실했으므로 마지막 남은 국민에 대한 의무로서 퇴진해야 마땅하다.

정부에 요구한다! 나라의 혼란한 틈을 타서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한일정보보호협정과도 같은 중요한 조약이나 협약을 추진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 시급한 사안이라면 국회비준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라.

야당들에 요구한다! 외치를 마치 박근혜대통령이 내치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교환조건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 내치와 외치는 분리할 수 없을뿐더러, 외치는 우리의 미래를 더욱 파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 트럼프 당선 이후 대응을 국면 전환용으로 삼지말라. 외치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하루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공백을 최소화하라.

2016년 11월 16일